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30, 베드로전서 1:3-12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30회기 베드로전서 1:3-12 입니다 .

나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추적하고 이 기본 구절의 해석에 관해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서 조사에서 베드로전서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우리가 가진 권고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조사로 시작하는데, 내 판단으로는 두 가지 주요 단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단위는 실제로 절반 절 길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3b부터 12절까지의 이 진술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1장 3b절부터 9절까지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장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는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전 경륜의 사자들, 선지자들, 천사들에 비해 특권과 지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장점. 그러므로 1장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고,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유익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경험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3절부터 5장까지의 소망과 기업의 거듭남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체험,

그리고 1장 6장부터 9장까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의 가능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체험. 그리고 다시 1장 10절. 12장을 통해 기독교인의 장점인 메신저에 대한 특권과 지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중 운동을 포함하는데, 1장 10절부터 12a절까지는 선지자보다 특권이 있고 1장 12b절에서는 천사보다 특권이 있다. 그가 여기 1장 3절b부터 9장까지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1:3b부터 9까지와 1:10부터 12까지에서 그는 시련과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는 시련과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에서 후속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1장 3절의 결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받으리라는 분명한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b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혹은 복을 받아야 하는 원인이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여기에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대조의 반복에 의한 비교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방금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모두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비교됩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구원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과 미래의 영광과 구원 사이의 대조, 대조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조되는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 모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 사이의 대조되는 운명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환난과 고난이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9).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도 영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인과관계가 반복됩니다.

시련 중의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반복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기서 구원은 찬양, 존귀, 영광뿐 아니라 미래의 찬양, 존귀, 영광, 현재의 기쁨의 관점에서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여기서 묘사하는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구원을 경험하고 섬김을 받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1절의 경험(3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함) 사이에도 대조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예언하고 그리스도인을 섬겼다고 하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와 천사의 섬김을 받고, 선지자와 천사는 그리스도인을 섬깁니다. 즉, 선지자와 천사만이 선포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언급한 10절부터 12절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유익에 대한 전체 개념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전체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3절부터 9절까지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천사의 하위적이고 다소 낮은 경험이 10절부터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분석이나 사고 흐름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일반적인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로 세그먼트 설문조사의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1:3a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3b절에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축복의 사업, 축복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분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인식과 확신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전체 개념을 다루고 확립하는 것이라면, 그가 서신을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주요 목적이나 기능이 하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인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찬양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2:12에서 언급한 목적 진술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 이는 만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세상에서 수단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가 말할 때, 그는 여기서 특히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와 관련하여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암시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관련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아버지가 베드로가 제안한 것처럼요. 자연계시도 아니고,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신약에서의 성취와 관련 없이 그 자체로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1장 10-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말할 때 구약의 계시를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11절에서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르는 영광을 예언할 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때와 때를 지시하시는지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들 됨은 그리스도의 것에서 파생되고 중재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탄생, 그분의 부활입니다. 다시 3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공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특히 그분을 주님으로 복종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1장 14절에서 이 점을 다시 지적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남으로 된 것이라 순종하는 자녀는 음욕을 본받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전에 알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각각 공평히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르면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면 너희 유배 기간 내내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이제 1장 3절부터 5절까지, 1장 3절부터 12절까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축복의 선언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말했듯이 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3b부터 9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고, 우리가 이미 조사에서 말했듯이, 그분은 여기에서 1:3b부터 5까지의 소망과 기쁨의 중생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산

소망과 유업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서의 삶과 부활의 관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유업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탄생과 상속 사이에는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아들의 명분을 의미하며, 상속은 아들의 명분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은 이 유업의 성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격이 있는 이유는 이 유업의 성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 유업의 보존에 관해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는 계시될 종말론적 구원이 끝날 때까지 신성과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신적인 측면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인간의 측면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명히 여기서 새로운 탄생, 즉 아나게 나오(anagenao), 위로부터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1:23에 다시 말씀하시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신약의 다른 곳, 특히 요한의 글에서 발견되지만, 이 동사는 실제로 신약의 여기 베드로전서 123장에서만 발견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현세의 삶과 세상적인 것들을 궁극적으로 보는 현실관에 반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유형의 존재, 하나님의 현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형성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존재, 이 세상의 현실에 의해 형성된 존재. 그것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서 낯선 사람과 망명자들의 언어에 대한 전체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거듭남의 근원은 그분의 크신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자비로운 도움이라는 개념이 관련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도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도움에 의한 구약의 헤세드 개념을 말하는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 자비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조점에서 두세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중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임을 강조하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신중심적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신성한 수동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장점은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갖 종류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특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일한 크신 자비의 능력으로 계속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영적 필요, 경이로움, 칭찬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겸손과 기대로 찬송하리로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파괴적인 세력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힘은 그분의 크신 자비에 의해 강력하며 따라서 크나큰 자비입니다. 큰 자비가 요구됩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세력, 즉 우리를 구원해 준 이러한 파괴적인 세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마도 이러한 세력은 죽음과 절망, 절망, 무익함과 같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발전시키실 것이고, 베드로도 상황 속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세 번째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되는 것은 자비로운 거듭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 사실을 2:10과 7에서 다시 밝히실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자비를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은 그분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긍휼을 입음으로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는 것은 교회를 연합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런 종류의 자비를 공유하며, 이는 우리를 하나로 묶기도 하고 실제로는 갈라지게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묶으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물론 이 자비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A를 주목하세요.

새롭게 태어났다, 둘. 첫째,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이제 희망은 이 책의 핵심 용어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parousia) 때에 있을 하나님의 미래 구원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희망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희망에는 신뢰, 정보에 입각한 낙관주의, 인내심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불안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종말에 비추어 생활하고 종말의 궁극적인 현실에 비추어 현재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와 불안,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과 안전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확고한 확신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미래 지향적이지만 현재 존재에 대한 발견된 의미를 충족시켰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확실히 기대하며 사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래의 구원이 우리의 현재 존재를 알리고 형성하여 지금 일종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발전시킬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소망은 바울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존재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권고는 1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파루시아를 향한 희망에 맞게 생각을 완전히 형성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작됩니다. 1장 21절에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장 5절과 6절에서 소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3:6,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순종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3:5, 한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그가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기를 단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소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변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베드로 신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데, 이는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강조점의 차이를 실제로 나타냅니다.

베드로에게서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미래입니다. 대부분 바울 안에 있다면, 바울 안에 있는 구원의 지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 안에 있는 구원의 장소이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의 장소는 그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미래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은 베드로가 현재 구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구원은 일종의 기대이자 예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소급. 우리는 마지막에 체험하게 될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체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풀과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틀림없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구원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정확히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실제로 신학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 (crucis)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 즉 십자가의 신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지배적이지 않으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요한 신학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구원을 미래와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경험은 그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처럼 우리는 일차적으로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이차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 믿음이 구원의 작용 요소로 강조되는 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할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마치 베드로전서도 믿음의 소망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강조의 문제인 거죠. 이제 이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산 소망으로 한정됩니다.

그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두 번 더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새로운 탄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2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산 돌로 묘사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삶의 개념은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 활력, 신뢰성 및 확실성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생명도 존재한다는 생명의 의미로 살아갑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생명은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활동적이며 모든 생명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신약학자인 보 라이체(Bo Reiche)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역사적이며 역사의 차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 과거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부이고, 과거의 사건이며, 또한 종말론적이며 역사의 종말에 속한다. 그것은 시간에 따른 종말론적 사건이다.

시대의 끝이 왔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죽음 속에서도 희망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점은 희망이 상황에 따라 약화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심각하고 매우 어려운 독자의 상황과의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고 방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 요소에 주목하기 위해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의 두 번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그런데 산 소망은 실제로 산 소망에 비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더 주관적, 즉 소망의 삶에 해당하는 반면, 이 상속은 더 객관적인 것, 즉 희망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특히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경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상속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상속이 특히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에 사용되는 구약의 언어에 대한 암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기업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은 그들의 상속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땅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업은 가나안 땅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차이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에 대한 세 가지 부정적인 점으로 표시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불멸의, 아프타르 토스(Aphthartos),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자신을 특징짓는 속성, 썩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즉 어떤 변화도 없고, 부패도 없고, 부패도 없고, 재앙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아미안토스(amiantos), 도덕적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악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사물에 가져오는 종류의 손상이 없고, 재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상, 더러움, 악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시들지 않는, 아마란톤, 그 광택이나 매력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싫증을 느낄 만큼 성격이 강한 세상적인 것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들의 문제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부 교부들이 영원한 영광, 영원을 묵상할 때 큰 문제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약성경에서 끝없는 시간으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이다. 우리 심심하지 않을까? 천국의 지루함의 전체 문제. 그리고 피터는 이 문제를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켜워질 만큼 세상적인 것들에 비해 그 광채나 매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즉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일시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가 선택한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미래의 하늘 영광을 부정적으로, 즉 그렇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 영광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제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성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늘에 보관하신 신성한 수동태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유일한 통제권을 행사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어에서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완료형은 예금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미 존재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점은 보증을 강조합니다.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십니다. 상속 재산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이 상속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보존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성한 수동태를 나타내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받는 이 단어에는 군사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이는 보호적 양육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기에는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호에는 실제로 두 가지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성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행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의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사업은 꽤 강력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에도 작용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누구도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감리교와 웨슬리안 전통에서 신약성경 전체가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암시하거나 가르친다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보호받는 사람.

물론, 개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당신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히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는 인간의 참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주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마지막으로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보호 능력은 작용합니다. 피스티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게 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존재를 보존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대한 미래의 강조점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가겠습니다. 여기 3절부터 9절 사이에 두 번째 약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태어나는 효과인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가능성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응. 1장 6절부터 9절. 이제 이 구절의 강조점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쁨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물론 그는 여기 8절에서 그분을 보지 못하였어도 너희가 그를 사랑하고 지금은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고상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6절과 7절에서 불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에 대해 논하면서 시작합니다. 불리한 현실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1장 6절과 7절 이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니 이는 물론 약간의 대조요 양보하는 것이니 지금은 잠시 동안이라도 너희가 기뻐하느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하리니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주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여기서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기쁨은 6절과 7절의 주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 소망과 썩지 아니할 유업을 얻기 위해 거듭난 결과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절정에 달하는 이 기쁨은 그가 4장 13절에서 말한 대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물론 그는 여기서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의 맥락을 강조하며, 이 책에서 이를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책 전체를 읽으면서 고통의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재발이 실제로 책 내에서 발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재독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에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강조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 시험적이거나 준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련의 끝에 그리고 시련의 결과로 영광이 오리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체험이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신 후, 고난으로 인해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수습기간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에 관해 적어도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중간 지식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이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는 시험이나 시련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적합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함이 칭찬과 영광 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관계적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 가운데서 그와 하나가 되고, 영광 가운데서 그와 하나가 되는 특권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또한 종말론적이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세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대교와 신약성서의 메시아적 재난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야고보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의 시련은 구체적으로 시련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박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전개합니다. 야고보가 앞서 묘사한 많은 것들은 일반적인 인간 생활에 관한 것이지

그리스도인 존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와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시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포함하며 베드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것이 실제로 격려적인 일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한 여러분은 실제로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정말로 끝이 올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입니다.

유대교에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하고도 꽤 광범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경의 초기 기독교에 의해 선택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감람산 담화, 마가복음 13장 및 유사 구절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전체 기간이 특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은 이러한 메시아적 비애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기간에는 이러한 메시아적 재난 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7절에서 같은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실제로 좋은 소식이라고 그는 제안합니다.

이제 이 고난은 그들이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뿐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믿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박해의 밝은 면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시련에 목적을 갖고 계시며, 단지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믿음과 다른 모든 것의 믿음을 제거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는 마치 좋은

금속을 정련하는 일이 금속에서 합금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니면 시련 등을 견디지 못하도록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시며, 그 과정을 의도하시는 것은 믿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금속을 정련하지 않고 은이나 금 같은 좋은 금속만 정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8절과 9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보지 않고도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이 송고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이것은 가능한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리도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즉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적어도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피터 자신이 겪지 않았다고 제안한 독자들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나중에 5장 1절에서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는 우리 주님을 보았지만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신약성경에 자주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지 여드레 만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얹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으십시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그들이 보는 핍박자와 박해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이는 의심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결책은 미래지향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6절과 비교하여 기뻐하단의 역할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 기뻐한다.

당신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희망에, 희망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니라.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나 현재의 현실이나 현재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것들이 미래를 증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며,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그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하여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인도하거나 키워주는 일종의 믿음과 희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를 본 적이 없어도 당신은 그를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송고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난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이러한 무능력,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일종의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보았거나 지금 보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믿음과 일종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믿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 경륜의 메신저들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지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점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여기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 선택성입니다. 10절부터 12a절까지에서 선지자에 대한 그들의 특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문의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할 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 중에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셨으니 천국.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전 경륜의 메신저에 대한 지위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메신저였는데, 왜 천사들을 메신저라고 부르나요? 베드로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천사와 선지자를 연결한다는 사실은 그가 당시 유대교에서 매우 두드러졌던 개념을 끌어내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제로 신명기 33장의 한 구절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되었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받거나 천사 등을 통해 중재되는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주변에는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 중재되었으므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였다는

신약성서의 매우 광범위한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관한 동사, 여기의 모든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그들 측에서 부지런하고 끈질긴 탐구를 나타냅니다. 나는 또한 예언적 메시지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실제로 말한 것은 그리스도였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여기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신약의 확신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성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여기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선포, 즉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 사이의 메시지가 두 가지 방식으로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선포의 수단이나 권한 부여 측면에서 두 경우 모두 성령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그들은 11절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할 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한 일로 자기를 섬긴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긴 것이라.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이시니라. 기독교 복음 전파는 선지자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권한 부여, 동일한 수단, 동일한 선포 기관만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말씀이요 또 너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 구절에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인 요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한 증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는 선지자들이 정말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즉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가장 큰 선지자보다 큰 유익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들이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서 있는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적 이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랄 뿐, 문의만 할 수 있었던, 당신의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온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라보기만을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예언적 선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약성서의 중요성, 즉 히브리어 성경의 가치와 그 가치의 성격을 지적하며,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사용 방향과 궁극적으로 읽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작업하고, 구약을 읽고,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세요. 그 이하의 행위는 신성한 계시의 명백한 역사적, 성육신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매우 피상적인 방식으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구약성서 자체로 다시 읽어서 구약성서를 그 자체의 용어로 결코 들을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나 요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나아가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구약성서의 이 진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서? 이제 세 번째 강조점은 수단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메시지의 연속성,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그에 따른 영광입니다. 그리고 물론 넷째로 강조되는 점은 구원은 주로 미래일지라도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간의 구원은 주로 미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은 현재이고 과거의 성취이므로 예비되어 마지막 날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이 종말론적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종말론적 존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뒤와 앞을 모두 바라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구원은 지식이 풍부하고 실제로는 필연적으로 과거의 선지자와 천사로부터 지식을 얻었지만 여기서 율법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구원은 본질적으로 미래적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미래를 통해 현재의 구원이 알려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구원은 존재하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사전에 경험했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적어도 베드로가 그의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권고의 방식으로 제시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제공한 기초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30회기 베드로전서 1:3-12 입니다 .